

전남광주통합교육감 선거 ‘카지노 출입 논란’ 공방 격화

이정선 “김대중 후보, 도박 증거 나오면 사퇴해야” 김대중 측 “악의적 흑색선전...정책 선거로 가야”

이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교육감 예비후보가 ‘카지노 도박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예비후보를 향해 “실제 도박 증거가 나오면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후보 측은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우리 교육 역사에서 가장 기괴하고도 서글픈 변명을 목격했다”며 “카지노라는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했다. “카지노라는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했다. “카지노라는 공간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말했다.

은 도덕적 책임에서 나오는데, 도박장 출입 사실만으로도 교육자로서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실제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단 하나라도 발견되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았다고 공개 선언하라”면서 오는 12일 오후 3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었고, 이를 불법 도박장을 드나든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미 과거 출장 중 호텔 카지노 시설에 잠시 들렀던 일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시도민에게 사과한 바 있다”며 “상대 측이 이를 침소봉대해 ‘도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선 예비후보가 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단일화 대상인 김해룡·고두갑 전 예비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태욱, 광산을 보선 출마 “부강한 광주” 만들겠다

국민의힘 안태욱 전 광주시당위원장(사진)이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태욱 후보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에서 태어나 초·중·고·대학을 다닌 토박이이다. 지난 39년 동안 정통 보수 정당에 몸담아 온 정치인”이라며 “실용과 합리로 부강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광주시선거관위, ‘공정선거감관단 출범’ 6·3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감관단 사전설명회’에서 참관단 위원들이 선거관 관계자로부터 사전투표장비 및 투표지분류기 정비운영에 대한 안내를 듣고 있다. 공정선거감관단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며, 정당·학계·시민단체가 추천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참관단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사전투표소 운영, 사전투표함 회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점검, 투표지분류기 검증, 선거일 투표와 개표 등 선거 전 과정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협조요원으로 위촉돼 직접 참관해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는 “1987년 직선제 이후 광주·전남은 사실상 민주당이 지역사회를 독점해 왔다”며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 되는 기형적 정치 형태 속에서 독선, 반칙과 특권, 이권 카르텔, 필수와 구태정치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으로 인해 청사 문제를 비롯해 행정 인력, 조직, 시스템 정비, 예산 확보와 배분 등 막중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정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통합시장 후보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 출범

10일 광주 민심캠프사무소...시민주권·미래도약·원팀 등 구성 후원회장 이광재...총괄상임선대위원장 김원아·양부남·주철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자치시장 후보가 오는 10일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선대위의 명칭은 ‘전남광주대전환 선대위’로, 출범식에는 정청대 대표가 직접 참석해 민 후보 지원에 나선다. 선대위는 시민주권선대위, 미래도약선대위, 원팀선대위 등 3개 축으로 조직을 구성해 주요 인선을 마무리했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전문가그룹이 전남광주 대

통합의 밑거름을 함께 그리고 정책을 현장에서 검증·환류하는 ‘사발동문형’ 구조로 설계했다. 후원회장은 이광재 경기도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와 정청대 전 전남대학교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 김원아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 기술보좌관)이 선임됐다.

“어르신 돌봄, 가족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이종욱 통합시장 후보, 어르신 위한 10대 프로젝트 제시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사진)가 노인 복지를 위한 ‘어르신 행복 날개 10대 프로젝트’를 내놨다. 이종욱 후보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효도는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돌봄 국가 책임제를 호남에서부터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병 지원, 효도 수당 등이 포함된 어르신 돌봄을 위한 어르신 행복 날개 10대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우선 어르신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 안정을 위해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215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50~100%를 통합특별시가 지급하는 ‘가족 간병 법정 최저임금 보장제’를 제시했다.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실거주자에게는 월 30만원의 ‘효도 수당’을 지급한다.

의료분야에서는 비상시 24시간 가정으로 찾아가는 ‘119 호도 닥터’, 65세 이상 대상 ‘점담 마추치의’, 방문 약사의 ‘복약 안심 서비스’ 등을 약속했다. 주거·생활 공약으로는 문턱 제거와 안전바 설치 등 고령자 맞춤형 집수리 100% 무상 지원,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하는 세대 공감 안심주택, 365일 건강식 배달 서비스를 제안했다. 이종욱 후보는 “공공 돌봄공단을 신설해 흩어진 예산과 인력을 통합하고, 모든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의료진·상담사·수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 어벤져스’ 팀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만 광은 노조위원장, 민주 광역비례후보 출마

박만 광은행 노조위원장(사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한다. 7일 정치권과 금융계 등에 따르면 박만 광은행 노조위원장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추천 몫으로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에 맞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따라 늘어난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자 1명을 노동 분야에서 선출하기로 하고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에 추천해달

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헌·당규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요청이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부터 3년 임기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연임했다.

6·3 지방선거 브리핑

“여수 산업 구조 개편·민생 동시 전환”

명창환 여수시장 후보, 10대 핵심공약 발표

명창환 조국혁신당 여수시장 후보(사진)가 산업 구조 개편과 민생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석유화학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에너지·관광·정년·교통·행정 전분야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반도체·로봇 등 미래첨단 산업을 유치해 다극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연금·바람연금’ 도입을 제시했다. 시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관광·문화 분야에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를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재편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교통·인프라 분야에서는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 KTX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추진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해 지역 고립 구조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혁신 분야에서는 민원 접수 후 48시간 내 응답 시스템 도입과 간부회의 공개, 태운을 미팅 정례화를 약속했다.

“임대아파트 주거권 보호·교통혁신을”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4대 핵심공약 확정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민간 임대아파트 주거권 보호, 교통혁신 및 현대화, 차별화된 관광벨트 조성, 미래형 교육, 돌봄 인프라 등 4대 핵심공약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날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8일 간 ‘당신의 생각이 광양의 미래가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렴한 ‘시민 참여형 정책 캠페인’에 총 121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제안한 121건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4대 핵심공약을 확정했다. 4대 핵심공약은 수하원 등 민간아파트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민간 임대아파트 주거권 보호, KTX광양역 유치와 노후화된 중대형 버스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교통혁신 및 현대화, 구봉산-사곡 금강평곡로 이어지는 힐링관광코스를 개발해 관광만권의 특화된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차별화된 관광벨트 조성, 맞벌이 가정을 위한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및 AI코딩 등 미래형 교육, 돌봄 인프라 조성이다. 박 예비후보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안들을 놓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

“군정은 투명하게, 예산은 직접 확보”

차영수 강진군수 후보 ‘투트랙 군정’ 제시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사진)가 청렴 군정과 중앙 예산 확보를 양대 축으로 한 ‘투트랙 군정’을 제시했다. 차 후보는 7일 “고립된 행정으로는 강진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군정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군수는 중앙정부·국회·전남도와 직접 소통하며 강진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가 모든 인사와 행정 실무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는 투명한 군정을 만들 수 없다”며 “행정 내부 운영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고, 군수는 미래 먹거리와 예산 확보, 대외 협력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사와 계약, 예산 집행 과정에서 매관매직이나 사적 개입, 특혜성 행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청렴을 군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강조했다. 또 이 같은 방향은 김보미 전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내세웠던 ‘강진 제1호 영입사업’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민주당은 원팀”이라며 “김보미 전 예비후보의 좋은 공약은 경력의 경성을 넘어 적극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